



本誌 發行人 겸  
韓國單味飼料協會  
會長 俞東濬

##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는 여우

우리 주변에는 배경을 빌어 위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꼬리를 치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여우라고 한다.

여우라는 동물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서도 피 많고 교활해서 시세를 잘 이용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지칭하기도 한다.

여우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일화는 단연 호가호위(狐假虎威)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가당치도 않은 행세를 한다는 얘기가.

어느 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된 여우가 호랑이게 말했다.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너는 천제가 나를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로 정한 명을 어기게 되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만약 내 말을 못 믿는다면 당장 내 뒤를 따라 와 봐라. 나를 보고 달아나지 않는 짐승이 단 한 마리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 뒤를 따라가 봤더니 과연 여우의 말대로 주위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놀라서 모두 달아나 버렸다.

여우 때문에 달아난 것이 아니고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달아난 것임에도 호랑이는 이를 전연 깨닫지 못했다는 일화에서 나온 호가호위 즉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행세하는 교활함은 여우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자주 목격하게 됨을 알게 된다. 한번쯤 차분하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분명히 보일 것이다.

# 狐假虎威 호가호위 · 불가불가 不可不可

## ‘안된다’에서 ‘그럴 수밖에’

‘녹비에 가로왈(曰)자’란 얘기가 있다. 사슴가죽에 가로 왈 자를 써놓고 아래위로 잡아당기면 날 일(日)자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리도 되고 저리도 된다는 뜻으로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의 말을 쫓아 같이 행동하는 부화뇌동의 경우에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친구 중에 H라는 소설가가 있다. 오래전에 이 친구가 Q일보에서 구한말부터 8.15광복 기간에 해당하는 역사소설의 집필을 의뢰받았으며 자료수집과 현장 답사에 도움을 청해 왔기에 어느 주말을 이용하여 동행한 일이 있다. 무명의 독립 운동가 C모씨를 만났을 때 3·1운동과 33인의 얘기를 들었다. 지금 이 분은 유명 독립 운동가가 되었으며 민족문제연구에도 일가견을 이룬 분이다. 8·15 후에도 생존하여 3·1절이면 독립선언서를 읽던 분의 얘기, 암울했던 시절 반체제, 반정부 운동에 앞자리를 차지하던 어느 종교의 종교인중에는 단 한 사람도 33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도 상당수는 서명만 하고 시체 말로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며 행방을 감추었다는 이야기, 33인 중에 변절하여 친일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등 등 실명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머리가 그저 멍해지고 허탈한 생각이 들었다.

이보다 더 한 얘기가 있다.

1910년 경술국치를 앞두고 어전회의에서 한일합방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 “불가불가(不可不可)”다. 반대한다, 반대한다는 절대로 안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한자를 떼어 쓰면 불가불 가(不可不可)가 된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경술국치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시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의 대표적인 사례다. 안톤 슈낙도 지하에서 소스라쳐 일어나고야 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다.㉞